

## 꿈... 그리고 악몽에 관하여 존 버거의 ‘제7의 인간’

유 유 희

‘유럽 이민노동자들의 경험에 대한 기록’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아틸라 요제프<sup>1)</sup>의 ‘제7의 인간’이라는 시로 서두를 시작한다.

네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할 때면  
너의 적에게 일곱 명을 내보여라  
한 명은, 일요일에 일을 쉬고  
한 명은, 월요일에 일을 시작하고  
한 명은, 돈을 안 받고 가르치고  
한 명은, 익사하면서 수영을 배웠고  
한 명은, 숲을 이를 씨앗이 되고  
한 명은, 원시의 조상들이 보호해 주는 사람  
그러나 그들 모두의 책략도 충분치 않아:  
너는 제7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 (제7의 인간 중 일부)

저자인 존 버거(John Berger)가 어떤 의미로 ‘제7의 인간’이라는 제목을 붙였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1) 아틸라 요제프(Attila Jozsef, 1905-1937): 헝가리 시인.

‘독일에서는(그리고 영국에서는) 육체노동자 일곱 명 중 한 명은 이민노동자’ (12쪽)

라는 그의 표현대로 단순하게 이민노동자의 숫자적 해석일 수도, 또는 이 책을 읽고 영감을 얻어 무용극으로 공연을 했던 정영두의 표현대로 ‘모든 권력으로부터 소외받고, 의무만 강요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존 버거는 극작가, 다큐멘터리 작가이고, 미술평론가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이 책은 마치 이민노동자가 주인공인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장 모르(Jean Mohr)가 찍은 비교적 많은 양의 사진도 함께 실려 있다.

‘...사진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인 경우는 아주 이따금씩 밖에는 없다. 장 모르가 몇 년간의 세월을 두고 촬영한 사진들은 글로써는 도저히 필적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해 주고 있다...’ (5쪽)

이 책에서의 사진은 본문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가 아니라, 사진 자체가 또 다른 본문이기도 하다. 이스탄불에서 건너와 독일의 노동자 모집 센터에서 속옷 차림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이민노동자들(검사를 받은 사람의 가슴과 팔목에는 번호가 잉크로 찍여져 있는 사진), 도시의 새 아파트와 새로운 관청의 하수도를 만들기 위해 지하 30미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더러워진 얼굴과 웅이지고 거친 그들의 손. 침대 하나 달랑 있는 막사에서 모자란 잠을 청하며 휴일을 보내고 있는 그들... 이런 사진들은 그 한 장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1970년대 스페인·포르투갈·터키·그리스 등 개발도상국 출신의 유럽 이민노동자들이 스위스·프랑스·독일 등 선진 개발국에 유입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귀국하기까지의 그들이 두고 온 가족, 다시

돌아가야 할 고향, 일자리, 임금, 잠자리에 관한 기록이다. 1970년대의 스페인·포르투갈·터키·그리스의 이민노동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노동자가 되어 21세기의 한국에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 머물러 있다. 4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 유럽과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이라는 공간을 뛰어 넘어있지만 이민노동자들은 여전히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국경을 넘고,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낯선 외국어 속에서 언제 자신을 해칠지 모르는 기계 앞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야근을 마다하지 않는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민노동자의 수가 감소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문 중에 제시된 몇몇 통계는 이미 낡은 것이 되었을 수도 있다.’ (7쪽)

저자의 말처럼 시대와 공간, ‘통계’는 바뀌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변한 것이 없다. 유럽의 이민노동자들, 한국의 이민노동자들의 현실은 데칼코마니처럼 너무나 닮아있다.

이 책은 ‘그 남자’라고 지칭된 이민노동자의 이민 노동의 여정을 따라 1.출발 / 2.일 / 3.귀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이민노동자인 ‘그 남자’의 이민 노동의 기록과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노동자들의 인터뷰, 경제학에 관한 짧지만 명료한 고찰들, 그리고 보고서와 참고문헌에 관한 인용, 거기에 시와 사진 등이 뒤섞여 있다. 그래서인지 책을 펼치고 얼마간은 그 서술에 어리둥절하다. 그러나 본문에 접근해 갈수록 저자가 얼마나 적절한 시점에 글쓰기의 소재들을 배치했는지 알게 된다. 허구나 소설이 아니지만 지난한 이민노동자들의 현실의 ‘기록’이 독자로 하여금 ‘그 남자’로 감정이입을 하게 하여, 함께 분노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도록 한다. 본문에서 발췌한 몇 개의 기록의 단상들을 통해 이민노동

자들의 ‘꿈’을 좇았지만 대개는 ‘악몽’으로 귀결되는 그들의 여정을 보게 된다.

## 1. 출발

‘최근까지도 포르투갈에서 이민을 나가는 것은 대개 불법이었다…그들의 사례금은 한 사람당 350달러였다…이민 지망자들이 사기를 당했다…일부는 굶주림과 노숙으로 죽어 버렸고, 일부는 350달러만큼 더 가난해져서 간신히 길을 찾아서 돌아왔다.’ (49쪽)

‘…이민노동자들은 노동 인력이 부족한 곳으로 자기의 노동력을 팔러 온다. 그는 어떤 한 가지 종류의 일을 하도록 허락을 받는다. 그에겐 아무런 권리도 주장도 없으며, 그 일자리를 채우는 것밖에는 현실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62쪽)

‘기계를 가진 자들에게, 인간들이 주어지는 것이다.’ (73쪽)

## 2. 일

‘…그 일이란 닦아야 할 마룻바닥, 뚫어야 할 구멍, 들어 올려야 할 주물, 두들겨야 할 금형, 맞추어 넣어야 할 톱니바퀴 상자 같은 것들이다.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똑같은, 아니면 거의 똑같은 작업이 대신 나타나고, 똑같은 일이지만 다른 마룻바닥, 다른 구멍, 다른 주물, 다른 금형, 다른 톱니바퀴 상자가 나타난다…’ (91쪽)

‘그는 서류없이 도착했다…그의 사촌과 다른 일꾼 명과 한 방에서 며칠을 지내고 나자, 그는 일자리와 숙소를 찾아 나서지 않

을 수 없다...불법 이민노동자는 노동사무소에 갈 수가 없다...'  
(93쪽)

‘...그는 그래도 자기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매일 일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만약 잔업을 하거나 야근을 하면, 저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94쪽)

‘그 부품은 겨우 절반쯤만 들어간다. 그것은 도중에 막힌다. 그는 그 뒤로 손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시범을 통해 본 적이 있다. 빨간 불이 켜진다...기계는 멈추었고 부속들은 마치 진흙에 파묻힌 수레바퀴처럼 꼼짝 못하고 정지해 있다. 그가 부품을 엉뚱한 방향으로 집어넣었던 것이다. 작업반장이 그의 실수를 두고 그에게 욕을 퍼붓는다.’ (121쪽)

‘그는 새로운 언어의 단어를 스무 개 배웠다. 그러나 처음에 그가 경악을 했던 것은, 그가 말했을 때는 그 말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이었다...’ (126쪽)

‘이민노동자들에게 있는 유일한 현실은 오직 일하는 것과 그에 뒤따르는 피로뿐이다. 여가시간이란 것도 이국적인 낯선 것이다. 그로 하여금 자기가 아직 자기의 진짜 삶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어쩔 수 없이 기억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185쪽)

### 3. 귀향

‘집에 가냐구요? 물론이죠. 갈 수만 있다면 되도록 빨리요...난 내 나라 내 고향에서 사는 편을 언제나 선택할 거예요... 만약 고

국에서의 임금이 조금만 더 높고 누구나 거기서 취직을 할 수만 있다면, 아무도 외국으로 떠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223쪽)

‘그는 자기 나라보다도 더 빨리 변했다. 그가 떠나기로 결심하게 만들었던 경제적 여건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졌을 수도 있다.’ (231쪽)

‘그 남자’인 이민노동자는 그의 꿈을 좇아, 그에게 부여된 가족의 꿈을 등에 지고 타국에 온다. 그의 꿈은 고향에 지어지는 한 채의 집이고, 가족들의 손에 들려지는 문명의 상징들이다. 그러나 그가 꾸는 꿈은 ‘악몽’인 것을 타국에 들어선 그 순간 알아챈다.

2012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 땅엔 백만이 넘는 외국인(15세 이상)이 살고 있고, 그중 50만 명<sup>2)</sup> 가까운 사람이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이민노동자들이다. 그들이 이 땅을 밟았을 때, 단 한 사람도 자신들의 꿈이 악몽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은 꿈/악몽에 관한 책이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남들의 삶의 체험을 꿈/악몽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해서 악몽이란 이름도 너무 약한 것은 아닌가. 그들의 희망이 너무도 높아서 꿈이라는 이름도 너무 약한 것은 아닌가.’ (5쪽)

존 버거가 40여년 전 유럽의 이민노동자들의 꿈/악몽을 다룬 이 책은 이제는 한국에서의 이민노동자들의 꿈/악몽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다.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에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공하는 ‘노동’, 우리가 필요한 ‘노동’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

2)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고용-외국인고용조사-체류자격별 경제활동 인구.

이 꾸는 꿈은 무엇인지 ‘인간’인 그들 ‘노동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마도 이 책을 쓰면서 존 버거가 우리에게 바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